

# 공동주택 없어도 학교 살아났다

### 선홍초 27년 만 본교 승격 내일 본교서 기념식 개최 '마을 보물' 동백동산 활용 생태교육 통해 학생 유입



선홍초는 동백동산 등을 활용해 '건강생태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선홍초등학교 제공

마을에서 다세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본교 승격의 꿈을 이룬 학교가 있다. 마을이 품고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해 학생 유입에 성공한 제주시 조천읍 선홍초등학교다.

지난 3월 1일자로 27년 만에 본교가 된 선홍초가 이달 30일 오전 10시 학교 운동장에서 '기적의 날이터' 개장식을 겸해 본교 승격식을 갖는다. 그동안 본교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온 선홍초는 이날 비로소 학교와 지역주민 등 부단한 노력 끝에 '함덕초 선홍분교장'에서 '선홍초등학교'로 간판을 달게 된 결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선홍초는 본교 시절이던 2012년엔 1~6학년 전체 학생이 16명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9월 기준 학생 수는 총 89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는 2015년 도내 학교로는 처음 '건강생태학교'로 지정된 효과가

컸다. 지금은 제주형 자율학교로 건강생태학교를 운영 중인 선홍초는 '식생의 보고'인 동백동산 입구에 위치했다. 걸어서 5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동백동산은 '마을의 보물'이면서 선홍초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이다.

선홍초는 동백동산은 물론 습지센터, 꽃자왈 작은 학교, 대안학교 법사학교와 연계하거나 낙선동 4·3 유적지 등을 활용한 교육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등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 설문 결과 자녀를 전입시키기 위해 선홍1리에 이주했다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90% 이상은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이다"라며 "학력·진학 위주보다는 아이들의 현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건강하고 자유롭게 자랐으면 하는 요즘 학부모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선홍초는 본교 승격식에 맞춰 지난 27년간 학교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은 이야기를 담은 책자 '응답하라 1994×응답한다 2022'도 펴냈다.

전신취기자 sunny@ihalla.com

## 정신 건강의날 행사 진행 서귀포보건소, 내달 10일

서귀포보건소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하영울레 3코스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워크온을 활용한 '하영울레하길' 걷기 챌린지를 비롯해 다양한 정신건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걷기 챌린지는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건소는 이와 함께 10월 13~20일 동홍 주공 3·6단지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한다.

백금취기자 haru@ihalla.com

## 탄소포인트제 가구 4곳 중 1곳만 감축 실천

### 제주시 1만7476가구 인센티브 가입자의 25% 정도 참여 그쳐

제주시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대상 가구는 가입 가구 넷 중 한 곳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 기준 제주시에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는 7만3734가구다. 이 중에서 2021년 하반기 전기로 대표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인센티브를 받는 가구는 1만7476가구(지급액 총 2억894만원)로 전체의 23.7%로 집계됐다. 가입 가구는 2019년 6만6130가구, 2020년 7만1708가구, 2021년 7만3085가

구 등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19~2021년 최근 3년간 상·하반기 감축 참여 비율은 25% 내외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도내 시민단체에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대규모 관광사업장에 대한 감축 계획 수립을 잇따라 요구하는 가운데 탄소포인트제의 실질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전체 가구의 37.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만큼 앞으로는 생활 속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신취기자

## 2022 제주애 빠지다 17 위켄더스 창업 30대 여성 CEO들

# "기회의 땅이자 '매운 맛' 함께 있는 곳"

우연의 연속이 필연이 되고, 필연이 된 이들이 '기회의 땅' 서귀포시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은 서귀포시스타트업베이에 본사를 두고 해외 마케팅에 전념하고 있는 정은혜(39)·조아라(35) 주식회사 위켄더스의 공동대표로서 당찬 30대 여성 CEO들이다. 제품은 감귤류 등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격 건강트렌드에 맞췄다.

우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희는 라오스(조아라)와 서울(정은혜)에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었죠. 처음엔 디자인을 의뢰하는 거래처 업무(디자인이나 PM의 관계)로 만났는데, 2016년부터 라오스에서 직장 동료로 지내게 됐죠. 같은 팀원으로 주말마다 방콕과 호치민을 찾았었고, 중국과 일본 등 출장을 자주 다니며 '우리만의 사업을 찾자'고 의기투합해 지금 제주에서 창업한 사례죠."

이들은 2018년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홍콩에서 일을 하다 한국에 돌아왔고, 창업을 하려면 핫한 지금은 카페거리가 생길 정도로 서울이나 제주를 선택하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제주가 좁은 줄만 알고 속수를 잡았는데 이 또한 우연찮게 서귀포시에 위치했고 주변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제주 특산물에 감흥이 났었다.

이들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출장을 자주 다녔고 직접 호텔 개장 컨설팅과 K푸드 열풍에 맞춘 한국형 카페 창업 등 좌충우돌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들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국내시장에 앞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퇴사를 하고 홍콩에서 부티크 호텔과 카페 브랜드 및 운영 컨



정은혜·조아라(왼쪽) 위켄더스 공동대표가 지난 27일 서귀포시스타트업베이에 제주감귤로 만든 '프루트립 비건 디저트 퓨레'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백금취기자

## '우리만의 사업 찾자' 의기 투합해 제주에 정착 제주농산물 원재료 고품격 제품 해외시장 공략 창업·스타트업베이 입주... 행정지원이 큰 도움

설파팅 의뢰를 받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국의 유자청을 활용한 커피와 디저트를 만들었는데 현지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죠. 아마 저희가 만든 카페가 그 동네의 첫 카페일거예요. 지금은 카페거리가 생길 정도로 서울이나 제주를 선택하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제주가 좁은 줄만 알고 속수를 잡았는데 이 또한 우연찮게 서귀포시에 위치했고 주변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제주 특산물에 감흥이 났었다.

이들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출장을 자주 다녔고 직접 호텔 개장 컨설팅과 K푸드 열풍에 맞춘 한국형 카페 창업 등 좌충우돌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들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국내시장에 앞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출장을 자주 다녔고 직접 호텔 개장 컨설팅과 K푸드 열풍에 맞춘 한국형 카페 창업 등 좌충우돌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들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국내시장에 앞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퇴사를 하고 홍콩에서 부티크 호텔과 카페 브랜드 및 운영 컨

12월 두바이 출장을 앞두고 있다. 특히 'SIAL 2022'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식품박람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2개 업체에 포함됐고, 입상과 함께 메인 전시공간에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이러한 값진 결과에는 창업과 스타트업베이 입주, 해외마케팅 등 서귀포시의 행정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앞으로 10년 내 대박을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는, 제주에 먼저 뿌리를 내린 이들은 제주살이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충고한다.

"제주는 분명히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날것'들이 많은 기회의 땅이지만 여행을 하듯 즐기려고만 한다면 현실의 혹독함과 '매운 맛'을 볼 수밖에 없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커지겠지만 기우에 불과해요. 열심히 일하고, 틈틈이 힐링이 곁들여진다면 분명히 제주에서의 정착과 꿈은 실현될 겁니다." 백금취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활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악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NAVER D.M 검색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8.5cm 굴고리 + 3cm 인파고정판 + 인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